

20기, 이숙현 씨의 감정평가사 입문기

글. 이숙현 (실무수습자)



수험생활을 뒤로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시기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문직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성향에는 활동적인 직업이 맞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모습을 꿈꾸어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개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험기간이었기에 몸이 상할 때도 있었고, 실패에 자신감을 잃었던 적도 솔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가족들의 격려와 믿음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수험생활에 심신이 지쳐있었고, 점점 처음 시작할 때의 의지가 두려움으로 변모할 때쯤 맞이한 20기 합격자 발표일은 정말 앞으로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저 뿐 아니라 합격을 맞이한 20기 동기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 때의 가슴 벅찬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제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물론, 한 참 공부 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수험기간 중에 제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잠을 청하면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이런 의문과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합격이라는 기쁨은 이러한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합격이란 기쁨은 끝까지 앞만 보고 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 제가 감정평가사가 됐듯이 어떤 수험생이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도전하다보면 결국 그다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론연수를 마치며

수험생활을 뒤로하고 합격 후 처음 갖는 연수는 감정평가업계에서 첫발을 내딛는다는 기쁨과 20기 동기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되는 첫 단계인 연수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는 굳은 결심도 하였습니다.

이론연수기간은 제게 그동안 공부해온 것을 다 듣고, 보완하며, 더욱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었고, 동기들과의 프렌드십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제가 연수를 통하여 느낀 점 중에서 몇 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감정평가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분야도 다양하다는 것을 수험기간에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감정평가 라는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

2. 매달 개인별, 조별 과제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의 습득 및 동기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3. 이제 막 목표를 달성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 도전하고자 하는 패기 있는 동기들의 모습을 통한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 등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생활 직후 부족함이 많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감정평가업계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험생활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 될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많은 새로운 세상을 헤쳐 나가야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눈들이 저를 다시 한 번 평가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싸움이 아니라, 동기들과의 관계 등 제3자의 이목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이 학생의 신분인 상태에서 수험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초기에는 매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론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배우게 되는 실무 연수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연수의 연장선상으로 다양한 평가물건에 따른 평가목적별, 조건별 평가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단단히 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이론연수는 꿈을 현실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연수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지식,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야유회, 매달 주어졌던 과제, 시험 등은 이제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과정 늘 함께한 20기 동기들, 연수과정 준비로 고생하신 협회 직원 분들,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주신 연수위원님들과 강사님들, 저의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다짐

저는 첫 발을 내딛었고 지난 6개월간의 이론연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개월간의 실무연수 또한 매우 기대됩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만큼 얻는 것이 많고 저의 꿈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저희는 모두 원대한 꿈을 향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동반자, 그리고 경쟁자의 위치에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스케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잘 마치고 성공적인 연수생활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굳은 결심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꾸준히 노력하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계에 이바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